

세계 첫 AMG 전용트랙... 4.3km 맘껏 밟아 고성능 만끽

Q 르포 | 벤츠, 용인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가보니

獨 본사 개발 드라이빙 교육 제공
경험·전문·여성, 세가지 프로그램
참가비 10% 어린이 교통안전에 쓰여

“한국 자동차 애호가들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소해서 기쁘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지난 8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개설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AMG 스피드웨이는 벤츠가 지난 5월 개장한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전용 트랙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행사에서 완성된 AMG 스피드웨이 및 부대시설을 소개하고 AMG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9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AMG 본사에서 개

발된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AMG 본사에서 인증 받은 전문 강사진이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올 11월부터 AMG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선을 보일 프로그램은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하는데 중점을 둔 'AMG 퍼포먼스'와 보다 전문적인 드라이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AMG 어드밴스드'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AMG 포 레이디스' 세 가지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프로그램별 참가비의 10%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여 질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킷을 벤츠 AMG E63 차종으로 직접 체험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및 메르세데스-AMG E63 4MATIC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AMG E63 4MATIC(이하 AMG E63)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1월 국내에 출시한 베스트셀링카 10세대 E클래스의 최고 성능 모델이다. 기자가 용인에서 만난 차

종은 럭셔리 고성능 차라는 명성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가 화려했다.

기어를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자 AMG E63의 강력한 배기음에 전율이 느껴졌

다. 최고 출력 571마력과 76.5kg·m의 강력한 토크, 단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질주할 수 있는 가속력을 자랑했다.

AMG서킷은 4.3km 길이의 트랙에서 AMG 모델의 기술과 주행성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실라키스 사장은 디젤 차 인증 과정에서 물량 부족을 겪으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벤츠는 지난달 4위로 내려섰다. 지난 9월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1943대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월 판매량이 2000대 이하로 감소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배기가스 인증 문제는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현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관람객이 가로수길에 마련된 'LG V40 씽큐 스퀘어'에서 여권 사진 인화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가로수길서 'LG V40 씽큐' 체험하세요”

LG전자 28일까지 체험존 운영

LG전자가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ThinQ)'의 펜타(5개) 카메라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전자는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LG V40 씽큐 체험존 'LG V40 씽큐 스퀘어'를 열었다. 이 체험존은 28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LG전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체험존을 총 35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LG V40 씽큐 스퀘어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펜타 카메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촬영 경험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록 한다는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성능을 활용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가로수길 체험존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LG V40 씽큐로 여권 및 증명사진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이 LG V40 씽큐를 활용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픈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촬영 장비나 장소가 없어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던 1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LG V40 씽큐 스퀘어에서 상담 후 예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들의 콘텐츠 제작 강의 ▲UX 체험 투어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구서윤기자

KT, 스마트빌딩 솔루션 세계에 첫선

네덜란드 SDN NFV 월드콩그레스
차세대 광케이블 가상화 기술 등 소개

KT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SDN NFV 월드콩그레스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과 차세대 광케이블(FTTH)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KT는 행사기간 동안 전시부스를 차리고 미래 스마트빌딩 구현을 위해 가상화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모든 구간에서 광케이블과 무선으로 연결해 품질을 보장하는 '올 옵티컬 앤 올 와이어리스 통합배선' ▲SDN 기반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이어리스 빌딩 네트워크 솔루션' ▲액세스 내내 광케이블(FTTH) 전송기술을 SDN 기반으로 가상화 및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광케이블(FTTH) 가상화 기술'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SDN NFV 월드 콩그레스 행사장에서 KT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

KT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스마트 빌딩 인프라를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다. SDN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외수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에도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

KT는 이번에 전시되는 가상화 기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을 연내 대구 시 테크노파크와 대구 컨서트홀에 적용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이다.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 사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상선, 굿네이버스 구호물품 운송 후원

베트남에 40피트 컨테이너 2대분량

현대상선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베트남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의 해상운송을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운송되는 구호물품은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의류와 모자, 양말, 신발 등으로 구성됐다.

9일 인천항에서 선적된 구호물품은 현대상선이 운영 중인 'KVX(Korea Vietnam Express)' 서비스를 통해 18일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 후 내륙운송을 거쳐 안전성과 하우장성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9일 현대상선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현대상선

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의 해외 구호물품 운송 시, 자사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운송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우기자

LG CNS, IT업계 최초 지능형 ERP플랫폼 출시

외산 점령 국내 ERP시장 도전장

LG CNS가 IT업계 최초로 지능형 ERP 플랫폼 'LG CNS EAP(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LG CNS는 ERP 플랫폼 출시를 통해 외산 패키지가 점령한 국내 ERP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IT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국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장은 2800억원 규모로 그 중 외산 패키지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LG CNS EAP는 패키지 도입 방식 탈피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맞춤형 구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ERP 솔루션을 패키지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패키지 방식은 투자비용 대

비 기능 활용도가 낮았다. LG CNS EAP는 고객 요청에 따른 추가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 기존 비용 대비 약 3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업무절차를 대폭 줄이고 간단한 화면 구성으로 업무 처리속도도 최대 80%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미 LG CNS는 올해 초부터 10년 이상 쓰던 외산 ERP 대신 자체 개발한 LG CNS EAP를 전면 도입하고 일부 고객사에도 EAP를 적용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 검증은 완료했다.

예를 들어 재무 분야에서는 전사 판매 관리비 배부 체계 간소화를 통해 2시간 이상 걸리던 수백만 건의 정보처리를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인사 분야에서도 기존에 2~3단계로 나뉘어 있던 급여 계산 및 전표생성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

로 통합하여 기존 대비 50%의 급여 작업 시간을 단축했다. 구매 분야에서도 EAP의 간소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통해 구매 발주, 주문 입력, 재고 조회 등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으로 단축했다.

LG CNS EAP는 합리적 라이선스 정책으로 고객 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기존 외산 솔루션의 경우 매년 사용자를 재산정해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했다면, LG CNS EAP는 최초 도입한 임직원 규모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한다.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효율도 외산 대비 절반수준으로 책정해 구축 비용과 초기 라이선스 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운영비용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에서 최대 70%까지 절감 가능하다. /구서윤기자 yuni2514@